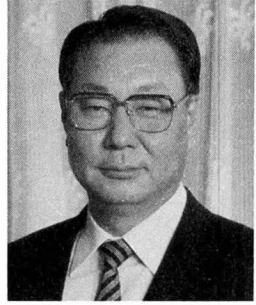


방재전문기관으로 정진할 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총력을 다해 경제개발에 힘쓰던 70년대에 있어서 1980년대는 희망의 해, 결실의 해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한해를 마감하며 동시에 1980년대를 접어두는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과연 그간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아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마침내 인류의 평화와 동서진영화합의 무대를 서울올림픽을 통해 이땅위에서 펼치는 등 세계속에서 보람있는 결실과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물론 이같은 성과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온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급속히 밀려온 민주화 열기에 다소 동요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진통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픔을 통해 더욱 성장해가는 것처럼 1990년대는 80년대 종반에 겪은 갈등들을 치유해가며 충실한 성장을 해갈 것입니다.

저희 협회로서도 73년 업무를 시작한 이래 80년대에는 나라 전체의 급격한 성장변화에 따라 대형건물과 산업시설들이 급격히 늘어나 화재보험업무는 물론 안전점검을 기반으로 한 화재예방활동을 위해 바쁘게 뛰어다녔습니다.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신설·증설되는 산업시설은 매년 크게 늘어나 80년 1만5천3백여건에 불과한 특수건물이 90년 3월에는 4만5천4백여건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안전에 관한 의식이 낮았던 70년대와는 달리 협회의 철저한 안전점검과 꾸준한 방재활동으로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손해율이 크게 낮아져 81년과 84년 두차례에 걸쳐 30%까지 보험요율을 대폭 할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재에 대한 국민의식을 다져가면서 산업체 위험관리기반을 구축해가고 보험계약인수기법 개발에도 노력하는 가운데 협회는 방재시험소를 설립, 안전점검활동을 통해 습득한 방재관련 기술과 정보를 더욱 체계화, 발전시키며 동시에 국가인정시험을 대행해 국내방화제품 품질향상과 보다 심도있는 산업체 유형별 위험관리 기술을 개발, 보급해 왔습니다.

한편, 지난 89년 10월 1일부터는 그간 협회에서만 취급해오던 특수건물 화재보험업무 일부가 자율적인 모집경쟁을 위해 일반 손해보험회사에서 담당기로 함에 따라 협회는 앞으로 더더욱 방재전문기관으로의 기반을 닦아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협회는 이를 위해 대형건물 및 국가 기간산업시설에 대한 방재활동 확대를 비롯, 화재위험도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점검업무의 내실화, 방화안전 관련제품에 대한 시험연구업무, 방재시험소의 종합위험관리센터로의 전환가능성 등을 검토, 추진해가며 한편으로는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업무 총괄관리와 의무보험의 효율적인 운영 또한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한해동안에도 협회 업무에 대해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사원사, 특수건물 소유주, 관계기관 여러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저희 협회업무에 대해 보다 많은 격려와 충고, 협조가 있으시길 기대하며 경오년 한해동안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

1990년 새해 아침에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이상규